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최선의 주일예배

하나님 앞으로	사역과 행사 안내
	찬양과 경배 (찬양팀과 함께) 예배기도 / 김훈태 집사 주님 가르치신 기도
말씀과 결단	성경말씀 로마서 1:1-7 <b>복음의 열정으로 다시 일어납시다!</b> 말씀선포 / 김성배 목사 결단의 찬송 세상 모든 민족이
	현신과 나눔 봉 헌 / 최선운 집사, 박진성 집사 * 봉헌찬송 / 나의 생명 드리니 - 4절
삶과 세상으로	*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만남을 * 축 도 / 김성배 목사

〈\*표는 모두 일어 섭니다〉

예배시간 10분전 휴대전화 점등과 목상으로 준비하십시오.  
진정한 예배는 교회문을 나서는 순간부터 시작 됩니다.

## 금요 찬양 예배

8:00 pm

기도 : 오정은 집사  
말씀 : 김성배 목사 / 레위기 23:33-44  
이스라엘의 절기 - 조막절

### 주 없이 살 수 없네 / 찬송가 292 (통일 415)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귀한 보배피로 날구속 하시니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소망 나의위로 내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혼자 못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주는 나의생명 또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주는 아신다  
내영의 깊은간구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마음 누알아 주리요  
내마음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깊은 고독속에 내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때 날지켜 주시고  
내곁에 계신주님 늘힘이 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습니다."라고 고백하고 계십니까?  
이미 내가 연약한 줄은 알았지만 깊은 마음에서는 "돈 없이 살 수 없네 / 내 명예가 더 중요해 / 남이 나를 따르기를 원해 / 위로와 힘 주는 친구가 더 필요해"라고 노래하고 있기에 소름이 돋습니다.  
그래도 크리스찬이라고 불리면서, 돈을 의지하며 내 자존심에 스크레치나는 것도 싫고 '섬기는' 힘든 일은 안하고 싶고...  
아직도 갈 길이 멀고 신앙의 먼지투성이의 나지만, "주님만 계시면 행복합니다."라고 하는 고백이 내 삶의 기도와 호흡이 되는 날까지 전진해야 합니다. 오늘의 찬양 속에 우리 옆에 계시면서 위로하고 힘이 되시는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 한 주간의 기도

"주님, 저는 돈이 많아 질 때 웃습니다, 자식이 좋은 소식을 전할 때 어깨가 들썩입니다, 그런데 주님을 만나야 할 때도 그런가요, 예배의 기쁨과 기도와 말씀의 열정이 어디로 사라졌습니까, 나를 주님 앞에 무릎 꿇게 하시고 주님을 향한 간절함을 채워나가는 삶과 예배가 되게 해 주십시오"

### 교회를 섬기는 분들

LEAD PASTOR 김성배 목사  
WORSHIP LEADER 박진성 집사  
MISSION PASTOR 정종렬 목사  
BIBLE STUDY MINISTER 고순제 전도사  
장영현 전도사  
YOUTH MINISTER



베드로전서 1:15절  
"이런 식으로 두려워함은 금요도 아니라  
은혜의 두려움과 기쁨을 늘려나가는 것."

즐거워하며 예수님을 섬겼더니...(1)

요셉 자신이 여호수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내게 복을 주시므로 내가 큰 민족이 되었거늘 당신이 나의 기쁨을 위하여 한 제비, 한 분깃으로만 내게 주심은 어찌함이니이까 하니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큰 민족이 되므로 예브라임 상지가 내게 너무 좋을진대 브리스 족속과 르바임 족속의 땅 삼림에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하라 하니라(수 17:14,15)

1. 원하는 것 몇 가지

내가 원하는 사람과 일에 대한 내용이 중요한 시험이자 훈련, 극복해야 할 과정이다. 우리는 원하는 사람들과 조직을 이루어 의미 있고, 중요한 일, 내가 성장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싶어 한다. 별다른 문제가 될 것 없는 위와 같은 욕구가 우리 교회 안에서는 늘 문제가 되었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일을 위해 우리는 부름 받았다. 그것은 내가 원하는 일을 크게 만들어서 무언가 의미 있게 증명하는 것이 아니다. 나에게 의미 있는 일이 예수님께서도 의미 있는 일인지, 그 일이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는지 살펴보면 문제가 무엇인지 알 수 있다.

예수님께서 나의 주인이 되셨다면, 나는 내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부름 받은 사람이 예수님의 일을 한다는 것은 어떤 특정한 일을 말하기 전에, 나의 일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믿고 관계를 맺으며 따르는 것을 말한다.

그렇게 하다보면 내가 하고 있는 모든 일이 다 예수님의 일이 될 것이다. 그 일을 통해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 측면에서 명백히 신앙적인 일이지만, 그 일을 나를 위해 한다면 참 위험한 일이 된다. 예수님의 일을 예수님을 위해 하려고 한다면, 내가 원하는 사람을 찾아서는 안 된다. 내가 원하는 사람을 찾고, 원하지 않는 사람과 있는 것을 너무 고통스러워 한다면 말과 행동이 다를 가능성이 높다.

내가 원하는 사람은 내 말을 알아 듣고, 내편이 되어주며 나를 인정해 주는 사람이기 때문이다. 그런 관계 안에서는 예수님이 주인되실 수 없다. 서로 마음에 맞는 관계만큼 예수님이 없는 관계도 없을 것이다. 예수님께서 나와 관계의 주인이시라면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그분의 뜻을 받고 있을 것이다. 결코 쉽게 인간적으로 하나되기 어렵다. 늘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를 분별하시기 때문이다.

자연스러운 욕심이라도 예수님 앞에서는 문제가 될 가망이 높다. 예수님의 뜻을 거스르면서 오래 관계를 지속하긴 어려울 것이다. 욕심으로 하나 되기로, 예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기로 결정하지 않는 한 말이다. 서로 예수님의 뜻에서 벗어나지 않으려고, 성령께서 근심하시는 것을 깊이 받아들이기로 결정한다면 모든 관계는 사람 그 자체로 크게 의미가 없다. 예수님의 뜻이 없는 관계가 아무리 튼튼한들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내가 원하지 않는 사람은 나에게 안정감을 준다. 인간적인 마음으로 하나 될 가망이 거의 없기 때문이다. 사소한 것 하나를 하더라도 예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아니면 쉽게 되지 않을 것이다. 그런 관계야말로 우리를 보호해준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받아서 내가 원하지 않는 사람과 무리없이 지내면서 서로 친밀한 관계가 될 수 있다면 훈련이 거의 마무리된 사람이 아닐까 싶다. 내가 원하는 사람을 찾는 자체가 공동체에 위협이 될 수 있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환영과 교제의 식탁** 섬김의 교회를 방문하신 분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입니다! 예배후 주일 만찬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성도의 교제에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사역 / 행사

11월은 "감사의 달"입니다. 한 해 동안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복을 감사하며 가족, 성도와 이웃에게 받은 사랑을 기억합니다.

1. 금주는 **만남과 나눔**의 주간입니다. 가정과 일터에서 말씀과 기도로 축복하며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사역에 협력을 부탁드립니다.
2. Daylight Saving Time이 끝났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건강한 성도와 가정, 열매를 풍성히 맺는 사역과 생업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3. 주일성경공부가 계속됩니다. 참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요한복음의 7가지 기적들: 장영현 전도사 / 성경인물: 고순제 전도사
4. 섬김의 교회의 **다섯째** 해도 하나님을 예배하며, 복음을 전하며, 치유와 회복과 나눔의 사역들이 더 풍성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며 건강한 교회 공동체가 되도록, 성령님의 능력, 하나님의 인도와 은혜를 간구합니다.
5. **모이기에 힘쓰는 교회**가 됩시다. 아침 기도회 (화-금, 오전 6시/ 토, 오전 7시)을 통해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며, **금요찬양예배**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과 경배를 드립니다.
6. 청년들의 학업과 진로, 직장과 미래를 위해 기도합니다.
7. 유초등부와 중고등부 사역과 **사역자 청빙**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8. 노환과 질병으로 투병중인 가족과 교우의 조속한 회복, 특히 정홍렬 목사의 건강을 위해 기도합니다.

♥**사랑의 순례**♥ 김지수(11/2) 정연미(11/4) 홍정임(11/4) 박진성(11/5) 정하민(11/23)

예배와 양육 / 교제와 나눔 / 치유와 회복  
건강하게 성장하는 섬김의 교회가 되게 하소서

기도제목

1. 교회와 성도를 섬기는 목회자들의 강건함과 사역을 위해
2. 박진성 집사의 완전한 회복과 최윤정 학생(눈)의 빠른 치유를 위해
3.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으로 정홍렬 목사가 건강(신장기능)을 유지하도록
4. 교우들의 사업이 믿음 안에 청지기의 사명으로 운영, 발전하도록
5. 좋은 English Ministry 사역자를 하나님께서 보내 주시도록
6. 주중 성경연구(화 & 목 / 미사야서)의 발전을 위해

예배 섬김이

주일예배기도	10/27	11/3	11/10	11/17
	장영현전도사	김훈태집사	구은강집사	박진성집사
금요일예배기도	11/1	11/8	11/15	11/22
	최내권집사	오정은집사	구민집사	최선윤집사
주일헌금위원	10/27	11/3	11/10	11/17
	박진성집사/최선윤집사	최내권집사/유동숙집사		
주일안내위원	10월	11월		
	최내권집사	구민집사		

말씀노트 Sermon Note

(지난주일 말씀요약) 예수님 안에서 행하는 사람이란? / 골로새서 2:6-7

성도는 예수님 없이는 살 수가 없고, 모든 것을 주님으로부터 공급받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입니다. 성도가 예수님 안에서 행한다는 것은 첫째, 예수님 안에 뿌리를 내리고, 둘째, 예수님의 세우심을 받으며, 셋째, 믿음 위에 굳게 서며, 넷째, 감사가 넘치는 모습입니다. 예수님이 삶의 원천이 되시고, 세워주시면 겸손히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며, 믿음 위에 굳게 설수록 예수님 한 분만을 붙들고 살며, 상황과 형편에 상관없이 항상 감사하게 됩니다. 이렇게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는 성도를 볼 때, 성도를 둘러싸고 계시는 예수님이 보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작은 예수, 예수님의 분신이 됩니다. 이런 영광스러운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가 됩니다.

복음의 열정으로 다시 일어납시다! / 로마서 1:1-7

개인의 정체성과 삶의 의미/목적은 중요합니다. 어디서 어떻게 찾게 됩니까?

바울의 간절한 소망과 상황은?

그의 적극적인 반응은?

바울에게 복음이란?

복음 때문에 갖는 열정이란?

복음은 진정한 가치를 가졌기 때문에 값진 인생을 아낌없이 투자해도 아깝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행복한 인생이 됩니다.

복음의 열정으로 다시 일어납시다! / 로마서 1:1-7

바울은 로마를 직접 방문하려고 여러번 시도 하였으나 실패한 바울은 로마서를 보내며 로마의 성도가 믿음 위에 굳게 서도록 도왔습니다. 바울은 로마서 말씀을 복음으로 시작합니다. 1절에서 바울은 사도로서 자신의 존재 목적이 복음을 위한 것이라는 겁니다. 이어서 인사말을 쓰기도 전에 다짜고짜 복음에 관하여 먼저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보면 바울이 로마 교회에 복음을 가르치는 것을 얼마나 급하고 중요하게 생각했는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복음을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설명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기쁜 소식이 복음입니다. 이 복음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다고 합니까?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에게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성경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신 많은 약속이 이미 이루어졌고, 또한 앞으로 이루어질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많은 약속들 가운데, 단연코 최고의 약속은 예수님에 관한 약속입니다. 선지자들을 통해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구원자로 오심이 반복적으로 약속돼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과 언약을 맺으시고, 다윗의 후손이 영원히 왕으로 다스리게 될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예수님은 약속처럼 다윗의 혈통에서 태어나셨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결코 파기되지 않음을 보여 주셨습니다.

또한 바울 사도는 예수님이 성결의 영으로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선포 합니다.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심으로 예수님의 신성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증명하셨습니다.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이 고백은 예수님의 죽음을 가장 가까이서 지켜보았던 로마 백부장의 고백이었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물과 피를 모두 쏟으시고 돌아가시는 모습을 보고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였다면,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본 자들은 어떤 고백을 해야겠습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핍박하던 사울이 180도 바뀌어 예수님께 미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바울 사도에게 있어 예수님의 부활은 복음의 요체였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산 소망이 됩니다.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시는 예수님이 스스로 완벽한 제물이 되셔서 단번에 완전한 속죄의 제사를 드리셨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으로 우리의 죄가 사하여졌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로 예수님은 죽음에 대해 승리를 선포하셨습니다. 우리에게는 이제 천국에서의 영원한 삶에 대한 소망이 생겼습니다.

이 얼마나 기쁜 소식입니까? 그런데 이 기쁜 소식을 지금 얼마나 기쁘게 받아들이고 계십니까? 만약 복음을 들어도 마음에 감격도 없고, 기대도 없다면, 지금 우리의 모습을 점검해야 합니다. 바울이 가졌던 복음을 향한 열정을 우리도 가져야 합니다. 복음으로 인해 삶의 목적을 재점검하며, 복음으로 인해 기뻐하며 참 소망을 갖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적용과 실천노트

Application Note



“내 영혼이 잠 못 들 때 내가 밤사에 잡히고 감격하기를 간구하도라”

# 섬김의 교회

church of servants

847-691-7846 / www.churchofservant.com  
600 Deerfield Road, Deerfield, Illinois 60015

치유, 회복, 나눔

November 3, 2019

## 섬김의 교회는...

- ▶ 최고의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합니다.
- ▶ 하나님의 사랑에 빛진 교회의 사람으로, 섬김을 기쁨으로 생각합니다.
- ▶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향해 쉬지않고 성장합니다.
- ▶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 더 행복한 교회와 가정, 개인의 생활을 소망합니다.
- ▶ 하나님의 나라를 모든 사역과 삶의 영역에서 세웁니다.

## 예배 및 모임 안내

- 주 일 예배 / LORD'S DAY WORSHIP : SUNDAY 11:30 AM
- 주 일 학교 / SUNDAY SCHOOL : SUNDAY 11:00 AM
- 생명의 삶 나눔 / QT SHARING : SUNDAY 10:15 AM
- 금요찬양예배 / FRIDAY SERVICES : FRIDAY 8:00 PM
- 새벽경건회 / EARLY MORNING DEVOTIONS : TUESDAY~FRIDAY 6:00 AM  
SATURDAY 7:00 AM
- WOW / WOMEN OF WORSHIP : SATURDAY 11:00 AM
- 성경 공부 / BIBLE STUDIES : SUNDAY 1:30 PM  
WEDNESDAY 7:00 PM
- 일대일 제자 훈련 / DISCIPLESHIP CLASSES : WEDNESDAY 7:30 PM

## 교회위치 (Our Location)

600 Deerfield Rd., Deerfield, IL 60015



www.churchofservant.com

## 감사의 달 만남과 나눔의 주간

꿈이 있는 교회

섬김이 있는 교회

어제보다 오늘 더 행복한 교회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하여 본을 보였노라.  
요한복음 13:14-15



크리스천은  
영리가 없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영리를 이기는 사랑이다